

## 스키타이 복식 연구 II

- 페르시아 왕조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을 중심으로 -

장 영 수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조교수

### The Study on the Scythian Costume II

- Focused on the depicted Scythians on Persian Reliefs -

Youngsoo Yi-Chang

Assistent Prof., Dept. of Cultural Properties, Gyeongju University  
(2015. 12. 3 접수; 2016. 1. 22 수정; 2016. 1. 26 채택)

#### Abstract

The Saka were a large group of Eastern Iranian nomadic tribes on the Eurasian Steppe. The scythian figures shown on the Persian reliefs are esteemed as the only empirical material in the range of scythian costume researches. The study of the scythian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in the research of possible connections of our cultural roots with this region. The investigation was initiated by the theory, that the Korean people emigrated from the Eurasian region, so that their origin can be linked to Eurasian riding peopl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scythian clothing form in a typological system. This result shall be used as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 investigating the origin of the Korean clothing form. This study refers to data, which has been extracted from reviews of literature, articles and excavation data of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basic form of clothing shown on the Persian reliefs is the upperjacket with narrow sleeve and trousers. This basic form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1) The median tuniciform upperjacket ('Sarapis') and median narrow trousers ('Anaxsirides'), which is bound with its end shoes. 2) The Scythian 'Cutaway' upperjacket that is cut from the front in the middle to the knee with the diagonal lines and relatively wide trousers. They wore high pointed hats with flaps over ears and the nape of the neck. The first median type is dated from the 6<sup>th</sup> century BC, and the second type can be found on reliefs from the 5<sup>th</sup> century BC. In the meantime appeared a mixed form, namely scythian Jacket and median trousers. From this analysis could be observed that scythian clothing form has changed by median type to the scythian type. The Scythians shown on the Persian relief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s where they lived: Saka-paradraya, Saka-tigraxauda, Saka-haumavarga. Clothing typ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up. The clothing form is also used as a good parameter to distinguish scythian groups.

*Key Words:* Persian reliefs(페르시아 부조), Scythian(스키타이인), Clothing type(의복 유형), Median style(메디아식), Scythian style(스키타이 식)

## I. 서론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스키타이인이라고 명명한 종족들을 사카(Saka) 족으로 명명하였다(Jettmar, 1972). 이 사카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란어를 사용했던 이란계 유목민족들로 스키타이 문화를 대변했던 종족들이다(Saken: <https://de.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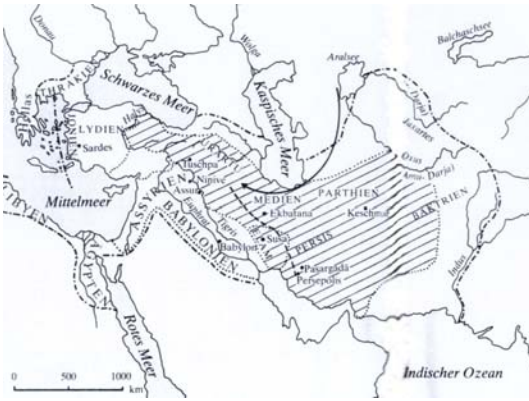
기원전 6세기 이전 불가(Wolga)강 서쪽에서 흑해 북쪽으로 이동했던 스키타이인들이 소아시아로 이주할 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의 전 왕조인 메디아(Media) 왕국과 교류하며 접촉이 시작되었다. 기원전 6세기 경 메디아국의 손자인 키루스 대왕(Kyrus 2세)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우면서 스키타이인과의 교류는 활발해지기도 하여 조공을 받치는 속국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하려는 아케메네스 왕조에게 스키타이인들은 항상 정벌의 대상이었다. 이런 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들에게 스키타이인들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에 묘사되어 있는 스키타이인들의 형상이다. 이 부조에서 스키타이인들은 그들 고유의 복식을 착용한 모습 그대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 부조는 스키타이인 연구를 위한 고고학, 인류학, 복식학 분야에서 유일한 실증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스키타이인들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종족이었지만 자기 고유의 언어로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아(Schmoeckel, 1982) 스키타이 연구는 대부분 스키타이 고분인 쿠르간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Parzinger, 2004) 페르시아 부조는 이런 점에서 스키타이 연구를 보완해주는 좋은 실증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스키타이 복식 연구는 '고대 한국의 북방민족 계열설'(이여성, 1947)과 '우리나라 민족의 기마 민족 유래설'(김동욱, 1979)과 관련하여 한국 복식의 원류를 밝히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며 한국 복식학계에서 꾸준히 관심 분야로 연구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장식류 분석에 치중해 왔다(김

문자, 1992, 1994, 1999, 2000a, 200b,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스키타이인 복식에 대한 연구(박순희, 1998; 장영수, 2015)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복식의 원류를 밝히는 연구의 초석으로 스키타이 복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는 흑해지역부터 중앙아시아와 알타이를 거쳐 시베리아 지역까지 광활한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인들은 그들의 종족과 혈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복식을 착용했었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착용했었던 복식에서 공통점을 강조하며 '스키타이식' 복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주장은 스키타이 쿠르간들을 직접 발굴하며 고고학적 유물을 연구한 독일의 고고학자 파징어(Parzinger)에 의해 받아들여져 파징어는 이를 '초원시대 복식'으로 명명하였다(Parzinger, 2004; 장영수, 2015). 이 연구는,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활한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인들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연구하려는 것의 일환이다. 본고는 첫 번째 연구, 스키타이 의복의 연구 I(-흑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인을 중심으로)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 본 논고의 목적은 스키타이인들의 형상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실증적 자료인 페르시아 부조를 분석하여 스키타이인들의 복식 유형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페르시아 부조에는 시대별로 조성된 각각의 부조마다 스키타이인들의 형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을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한국 복식학계의 과제인 한국 복식의 원류에 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하며 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아울러 실증 자료에 대한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독일 본(Bonn)에 있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 비유럽 문화 분과'(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Dept. of non-European Culture, Bonn, Germany)에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고대 페르시아 부조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곳이며 아울러 스키타이 연구에서는 꾸준한 발



〈지도 1〉 기원전 600년-335년경의 메디아국과 페르시아 왕조 - 빗금친 부분: 메디아 국, 점선 부분: 페르시아 왕조

(출처: Die Hirten, die die Welt veraenderten, Schmoeckel, 1982, Hamburg: Rowohlt, 321-322)

굴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연구소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외에도 연구자가 이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스키타이인들의 역사적 배경과 페르시아 역사에 나타나는 스키타이인

흑해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 카스피해 저 건너편에 살며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괴롭혔던 종족이 흑해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인과 같은 종족인지는 지금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 흑해 북쪽지방에서 발굴된 유물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고고학적 연구와 옛부터 내려오는 고대전설에 기인하여 흑해지역과 소아시아로 이동했던 킴메르인과 스키타이인들이 이곳에서 왔다고 추측하고 있다(Schmoeckel, 1982; Parzinger, 2004). 이들이 공간적으로 광량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상상되는 것처럼 이들은



〈지도 2〉 기원전 6-5세기경 스키타이인과 다리우스대왕의 스키타이인 정벌 - 사선 빗금: 스키타이인, 화살표: 다리우스대왕의 스키타이인 정벌

(출처: Die Hirten, die die Welt veraenderten, Schmoeckel, 1982, Hamburg: Rowohlt, 294-295.)

종족적으로는 같지 않았으나 이들이 영위한 물질문화는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1천년의 마지막 후반기 때 초원지대의 주민들을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이인이라 했고 페르시아인들은 이들을 사카인 이라고 불렀다(Jettmar, 1972; Gold der Skythen aus der Leningrader Eremitage, 1984; Parzinger, 2004).

스키타이인은 기원전 8세기 사르곤2세(Sargon II) 때 아시리아 역사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Ivantchik, 2001). 그러나, 스키타이인들이 어디서 온 종족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토론 중이다(Feld, 1999; Sauter, 2000).

헤로도투스(Herodotus)는 역사서 4장 11-13절(Herod: IV 11-13)에서 스키타이인에 대해, '기원전 14세기경 아시아의 키르기즈(Kirgiz) 초원에 살던 유목종족인 스키타이인은 마사게인(Masagetar)이 그들을 위협했을 때 우랄강(Ural 강)을 건너서 아리아(Aria)의 킴메르인(Cimmerian)이 살던 흑해 북쪽 우크라이나(Ukraine)로 이주했다'고 전하고 있다(Nagel, 1982). 이 스키타이인들의 이동은 기원전 1천년 경 초, 철기시대 초기에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가축을 치며 농경생활을 영위하며 정착해 있던 종족들이 갑자기 유라시아 초원 지대를 이동하며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 종족들에게 위협 당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그

들의 삶의 방식에까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종족이동이 시작된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나 헤로도투스가 추측한 연도는 이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Nagel, 1982; 장영수, 2015).

혹해 북쪽지방으로 이동한 스키타이인들은 킴메르 인을 위협하여 그들을 내쫓고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곳에서 살았다(Schmoeckel, 1982). 그 후 대부분의 스키타이인들은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남쪽으로 도망 간 킴메르인을 쫓아 이동하였는데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여 아나톨리아(Anatolia, 지금의 터키)지방으로 들어간 킴메르 인들과는 달리 스키타이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카스피해 남서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Aserbeidschan) 지역으로 이동하였다(Murzin, 1991; 장영수, 2015). 아시리아의 아사르하돈(Asarhaddon, B.C. 680-669)왕 때 스키타이인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북쪽 지방인 우르미아(Urmia) 호수 근처를 공격하여 승리하였는데 이것이 스키타이인과 아시리아와의 전쟁이다. 기원전 630-620년 사이에 스키타이인들은 아시리아의 서쪽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에서 피비린내 나는 흔적을 남겼다. 이후 아시리아인은 결혼 정책을 꾀하여 스키타이인과 연합을 꾀하였고 스키타이인은 아시리아와의 이 동맹을 바탕으로 북 메소포아미아 지역에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등장하여 메디아인에게 멸망 당할 때까지 28년간 소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Schmoeckel, 1982; Murzin, 1991; Sigrismund, 2005). 기원전 612년 메디아가 바빌론과 동맹하여 아시리아의 수도 니니베(Ninive)를 점령하고 기원전 605년 아시리아가 멸망하기까지 스키타이인들은 소아시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감행하며 소아시아를 지배하다가 기원전 600년경 스키타이인들은 소아시아에서의 투쟁을 뒤로하고 그들의 고향인 흑해근처 남 러시아로 돌아갔다(장영수, 2015).

기원전 6세기경 소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메디아 국을 무너뜨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던 메디아 국의 손자인 키루스 대왕(Kyrus 2세)은 기원전 530년 아랄(Aral)해의 아무다리아(Amu-Darya), 시르다리아(Syr-Darja)강 건너편에 살면서 아케메네스 왕조를 괴롭혔던 스키타이인 정벌에 나섰으나 그곳에서 요절했다. 그리고 아케

메네스 왕조를 세계 최초의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다리우스 1세 대왕은 기원전 519년 카스피해 동쪽에 살고 있던 스키타이인을 정복하기도 하였다(Schmoeckel, 1982; Nagel, 1982).

스키타이인들은 흑해 지역에서 유라시아의 초원지대를 거쳐 알타이 시베리아 지역까지 수백 개의 무덤(쿠르간, Kurgan)을 남겨놓았는데 이 무덤에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제기, 용기들과 아울러 그들이 착용했던 무기, 보석, 옷 등과 금 장식품등의 예술품들이 발굴되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케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키타이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와 섬세한 기술을 가졌던 유목민족이었음을 전하고 있다(Schmoeckel, 1982).

### Ⅲ.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의 유형별 분석

#### 1.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종족 분류와 그 종족들의 복식 유형 분류

##### 1) 고대 페르시아 비문에 기록된 스키타이인들의 종족 분류



〈지도 3〉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들의 거주 영역

(1) Saka-paradarya 인, (2) Saka-tigraxauda 인  
(3) Saka-haumavarga 인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p. 227.)

고대 페르시아의 비문에서 기원전 6-4세기의 스키타이인들을 세 그룹(- 1) 파라다르야 사카

(Saka-paradarya)인 2) 티그락사우다 사카(Saka-tigraxauda)인 3) 하우마바르가 사카(Saka-haumavarga)인으로 분류하였다(Calmeyer, 1985). 페르시아 부조에 이 세 그룹으로 분류된 스키타이인들은 그들 고유의 복식을 착용한 채로 묘사되어 있어 이 당시 스키타이인 복식을 그룹 별로 분석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 논고의 뒷부분과의 연결을 위하여 이 그룹들의 이름과 살았던 곳을 살펴본다(지도 3).

(1) 파라다르야 사카(Saka-paradarya) 인은 ‘바다 건너 사카인’으로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살았던 사카인들이었다(Saken, <https://de.wikipedia.org>).

(2) 티그락사우다 사카(Saka-tigraxauda)인은 ‘뽀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카작의 초원지대와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진 카작스탄 남동쪽에 살았던 종족이었다(Saken, <https://de.wikipedia.org>)

(3) 하우마바르가 사카(Saka-haumavarga)인은 하오마(Haoma)라는 약초를 피우는 사카인으로 지금의 타슈켄트(Taschkent), 듀산베(Duschanbe),



사마르칸트(Samarkand)지역인 옥서스(Oxus) 강(아무다리아 Amu-Darya 강)을 넘어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근처에 살았던 사카인이었다(Litvinskil, 1969; Parzinger, 2004; Schmitt, 2011).

2. 페르시아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의 기본형과 그 유형 분류



1) 페르시아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의 기본형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되어 있는 스키타이인들의 의복의 기본형은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와 바지이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상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튜닉형 저고리로 앞트임이 없는 전폐형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개형으로 앞에서 여며지는 스타일이다. 이 상의의 길이는 앞의 튜닉형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나 앞 중앙의 허리에서 무릎까지 직선으로 내려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허리에서 무

〈표 1〉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의복 유형 분류

| 복식유형     | 저고리 -1                       | 바지 -2                  | 도식화   |
|----------|------------------------------|------------------------|---|
| 메디아식 -A  | A1 - 메디아 식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   | A2 - 메디아 식 바지 ‘아낙시리데스’ |  |
| 스키타이식 -B | B1 - 스키타이식 전개형 ‘Cutaway’ 저고리 | B2 - 스키타이식 통이 약간 넓은 바지 |  |

〈표 2〉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뽀족한 모자 유형

| 끝이 뽀족한 모자 (3)  | 도식화   | 목 덮개 |                    |   |
|--|---|------|--------------------|---|
|  |   | 유, 무 | 모양                 | 도식화   |
| 끝이 뽀족하고 위로 높게 솟은 형 (3a)                              |  | 유    | 툽니 모양 형 (3a-1)     |  |
|  |   |      | 툽니 모양이 아닌 형 (3a-2) |  |
| 끝이 뽀족하긴 하나 위로 높게 솟아 있지 않고 모자의 전체적인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 형(3b) |  | 무    |                    |  |

를 뒤까지 사선으로 재단되어 오늘날의 연미복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다. 전자는 미디어 식 튜닉형 저고리로 ‘사라피스(Sarapis)’ (Widengren, 1956; Hinz, 1969; Bittner, 1985; Calmeyer 1982) 혹은 ‘카삭(Kasak)’ (Schmidt, 1957; Nagel, 1982) 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 저고리의 구체적인 형태는 허리에서 띠로 두 번 묶여지고 이 띠는 앞 중앙에서 매듭지어진 후 그 끝은 같은 길이로 양쪽으로 약간 내려져있는 스타일이다.

후자의 저고리는 전형적인 스키타이 식으로 ‘Cut-away’ 저고리라 명명되고 있다(Schmidt, 1970; Calmeyer, 1982; Truempelmann, 1988). 이 저고리에는 저고리 끝단에 장식선이 붙어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런 상의에 착용하고 있는 바지 또한 통이 좁은 스타일과 통이 약간 넓은 스타일로 구분된다. 통이 좁은 스타일은 바지 밑에 신발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이를 ‘아낙시리데스(Anaxyrides)’라 하는데(그림 1)(Bittner, 1985; 장영수, 2012). ‘아낙시리데스’는 그리스어로 ‘위에 혹은 그 위에’라는 뜻을 갖는 ‘ana’와 ‘신발의 한 종류’라는 뜻을 갖는 ‘-xyris’가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지는 전형적인 미디어식 바지로 분류된다(Bittner, 1985; 장영수, 2012). 반면 통이 약간 넓은 바지는 전형적인 스키타이식 바지로 분류되고 있다(Schmidt, 1970).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은 모두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 모자에는 귀 덮개와 목 덮개가 붙어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약간씩 다르다. 여기에서는 앞에 서술한 기본형을 <표 1, 2>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2) 페르시아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의 유형 분석

(1) 미디어 식 튜닉형 저고리(Sarapis)와 미디어 식 바지(Anaxyrides)

미디어 식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는 비수툰(Bisotun) 부조의 스키타이 왕 스쿰카(Skunka)(그림 2)와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궁 조공도 17번째 사절단 스키타이인(그림 3),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Artaxerxes I, B.C. 465

-424)때 지어진 페르세폴리스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그림 4) 11번 종족(그림 5)에서 관찰된다.



<그림 1> ‘아낙시리데스’ 바지에 신발이 붙은 형태

(출처: Hose, Reallexikon der Assy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æologie, Abb. 3, Calmeyer, P., 1972-1975,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그림 2> 비수툰 부조의 스키타이왕 스쿰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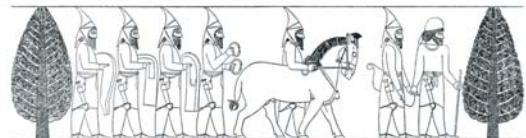
(출처: 연구자 촬영 2007. 02. 05)



<그림 3>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궁 조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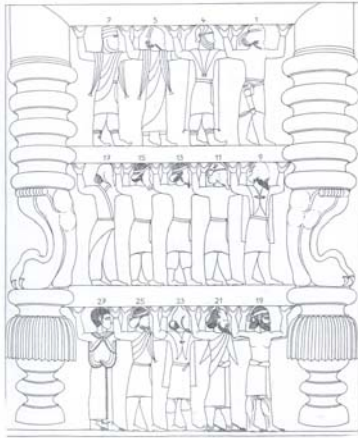
11번째 사절단 스키타이인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af. 18),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그림 3-1> 상제도

(출처: “Zur Herkunft von Medern und Persern” Truempelmann, L., 1988, Archæ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21, Abb. 10)



〈그림 4〉 100 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2, Abb. 5), Walsl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그림 5〉 11번째 종족 스키타이인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2, Abb. 5), Walsl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위에서 열거한 스키타이인들이 착용한 복식의 형태를 〈표 3〉으로 정리하였고 복식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스키타이인들의 명칭을 학자별로 첨가하였다.

〈표 3〉에 분류된 스키타이인들은 모두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메디아 식 바지 ‘아낙시리데스’(A1 + A2)를 착용하고 있으며 모자로는 끝이 뾰족하고 위로 높게 솟은 형에 목 뒷개가 톱니 모양인 모자(3a-1)를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Saka-tigraxauda 인으로 명명되고 있어 A1 + A2 + 3a-1 유형은 Saka-tigraxauda 인의 복식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식 유형은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서 1 번째 사절단인 메디아인에게서도 관찰되고 있어 (그림 6) 이 복식 유형은 메디아의 복식 유형임이 확인되고 있다. 즉, Saka-tigraxauda 인은 메디아의 복식 유형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아파다나 조공도1번째 사절단 사라피스와 아낙시리데스를 착용한 메디아인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af. 8), Walsl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표 3〉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메디아 식 바지 ‘아낙시리데스’를 착용한 스키타이인 분류

| 부조 명칭                             | 연대            | 의복 유형과 모자 모양   | 발저의 분류 | 헤르쯔펠트의 분류      | 슈미트의 분류         | 칼마이어의 분류        |
|-----------------------------------|---------------|----------------|--------|----------------|-----------------|-----------------|
| 비수툰 부조                            | 기원전 519년      | A1 + A2 + 3a-1 |        |                | Saka-tigraxauda | Saka-tigraxauda |
|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궁 동쪽 조공도 11번 종족       | 기원전 519-513년  | A1 + A2 + 3a-1 | 스키타이인  |                | Saka-tigraxauda | Saka-tigraxauda |
| 페르세폴리스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 | 기원전 (465-424) | A1 + A2 + 3a-1 | 스키타이인  | Saka-paradarya | Saka-tigraxauda | Saka-tigraxauda |



〈그림 6-1〉 상세도

(출처: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p. 100, Abb. 50), Koch, H., 1992, Mainz/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스키타이인들의 저고리는 일반적으로 앞이 터진 전개형으로 알려져 있다(Parzinger, 2004; 장영수, 2015). 그런데 위 부조들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은 앞이 터진 전개형이 아닌 전폐형인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면 위 부조에서 스키타이인들은 왜 메디아인의 튜닉형 저고리인 ‘사라피스’를 착용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 슈미트(Schmidt)는 두 종족이 지역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살았었기에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스키타이인들이 메디아국의 의복인 메디아의 튜닉형 옷을 차용해서 입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국의 10번째 사트라피(Satrapy, 도지사)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오르토크리반티안스(Orthocorybantians)’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includes “Agbatana and the rest of Media, with the Paricanians and Orthocorybantians”)(Schmidt, 1970) 이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뾰족한 모자인 ‘tigraxauda(pointed-hat)’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Schmidt, 1970; Shahbazi, 1982) 10번째 사트라피가 다스리는 지역은 뾰족한 모자를 쓴 사카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은 메디아인과 아르메니아인(Armenian)이 살았던 카프카서스(Caucasus)의 남쪽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이 지역은 메디아 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문화적으로 메디아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 지역 스키타이인들은 메디아인의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chmidt, 1970; Shahbazi, 1982). 즉, 슈미트는 뾰족한 모자를 쓰고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아낙시리데스’ 바지를 착용한 비수톤 부조의 스키타이인과 아파다나 조공도의 11번째 사절단 스키타이인들은 메디아 국의 근처인 카프

카스 남쪽에 살았던 스키타이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궁에 새겨진 비문(DPh)과 비수톤 비문(DB V 20 ff)에는 다리우스 대왕이 즉위 후 3년 재인 기원전 519년에 카스피해를 넘어 아무다리아(Amu Darya) 지역에서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을 무찔렀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은 아랄해 근처의 아무다리아 지역 스키타이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Nagel, 1982; Calmeyer, 1988; Truempelmann, 1988).

다리우스 왕은 집권 초기에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왕권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왕권에 도전하는 여러 종족들을 포로로 잡아 그 당시 대상(隳商)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인 비수톤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위에 포로들의 형상을 부조로 묘사해 넣어 자기 왕권의 힘을 과시하였는데 여기에 다리우스 대왕이 아무다리아 지역 스키타이인 정벌에서 포로로 잡았던 스키타이왕 스키타이를 묘사해 넣었다(장영수, 2008). 그러나 뒷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살펴보겠지만, 아랄해 지역의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은 일반적으로 스키타이인들의 전형적인 저고리인 전개형 ‘Cut-away’ 저고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스키타이인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에 대한 설명은 슈미트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슈미트의 견해는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Sakat-tigraxauda)들은 메디아 국과 접경 지대였던 카프카서스의 남쪽 지역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어서, 페르시아 비문에서 다리우스 대왕이 무찔렀던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Saka-tigraxauda)들은 카스피해 동쪽 아랄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이라고 기록되어있는 부분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리우스 대왕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 정벌을 두 번 시도했다는 견해도 있다. 두 번의 정벌이라 함은 한번은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정벌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남동 유럽의 스키타이인 정벌이라는 것이다(Shahbazi, 1982). 이 주장대로라면 메디아 국과 접경 지대였던 카



프카서스 남쪽 지역의 스키타이인과 아랄해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이 모두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주장은 슈미트의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아낙시리데스’ 그리고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에 묘사된 11번 종족(그림 5)이 어떤 종족인지 아직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 슈미트는 이들이 착용한 의복 형태 뿐 아니라 끝이 뾰족한 모자의 형태가 앞에서 설명한 스쿰카와 아파다나 11번째 스키타이인들과 같은 형태라는 것을 근거로 이들을 카프카서스의 남쪽 지역에 살았던 Saka-tigraxauda 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발저는 이 당시 모든 스키타이인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스키타이 고유의 전개식 ‘Cut-away’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11번의 의복의 형태는 잘못 묘사된 것이라 주장한다(Walser, 1966).

(2)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전개형 ‘Cut-away’ 저고리와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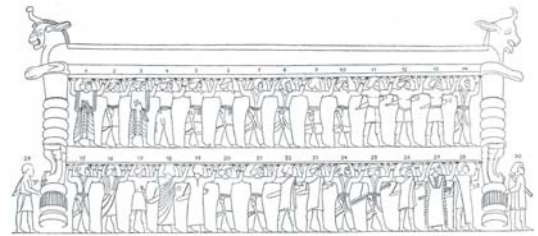
‘Cut-away’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는, 다리우스 왕 서거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Xerxes B.C. 486-465)가 조성한 다리우스 왕 무덤에 묘사된 부조(그림 7), 7, 8번 종족(그림 8, 9)과 14번, 15번, 24번 종족(그림 10, 11, 12)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Artaxerxes I, B.C. 465-424)때 지어진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의 17번 종족(그림 13)과 동쪽 문설주 부조(그림 14)에서 18번, 20번, 22번, 28번 종족(그림 15, 16, 17, 18)에서도 관찰된다. 이외에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세(Artaxerxes III, B.C. 358-338)가 완성한 다리우스 궁전에 묘사된 조공도 부조(그림 19)의 스키타이인들 형상에서도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나 모자의 형태는 종족마다 약간씩 다르다.

‘Cut-away’ 저고리와 바지 형태의 스키타이인들이 묘사된 부조들은 연대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사라피스’와 ‘아낙시리데스’를 착용한 스키타이인을 묘사한 부조보다 후에 조성된 부조이므

로 ‘Cut-away’ 저고리와 바지의 유형은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인 ‘사라피스’와 ‘아낙시리데스’의 유형보다 후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나그셰 로스탐 (Naqsh-e Rostam) (출처: 연구자 촬영 2008. 2. 2)



〈그림 7-1〉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Falttafel 1),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그림 8〉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7번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Falttafel 1),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그림 9〉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8번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Falstaffel 1),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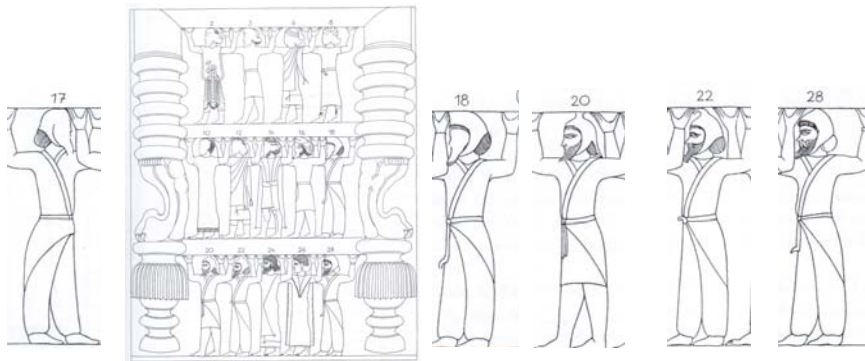
〈그림 11〉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15번 종족, 상세도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h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Fig. 2)



〈그림 10〉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14번 종족, 상세도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h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Fig. 4)



〈그림 12〉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 24번 종족, 상세도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h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Fig. 3)



〈그림 13〉 서쪽 문설주의 17번째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2, Abb. 5),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그림 14〉 100 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동쪽 문설주 부조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3, Abb. 6),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그림 15〉 동쪽 문설주의 18번째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3, Abb. 6),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그림 16〉 동쪽 문설주의 20번째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3, Abb. 6),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그림 17〉 동쪽 문설주의 22번째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3, Abb. 6),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그림 18〉 동쪽 문설주의 28번째 종족 상세도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3, Abb. 6), Walser, G.,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그림 19〉 다리우스 궁전 조공도 부조  
(출처: 연구자 촬영 2008. 2. 2)

〈그림 19-1〉 바지 상세도  
(출처: 연구자 촬영 2008. 2. 2)

앞에서 열거한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의 유형을 〈표 4, 6〉에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4〉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스키타이인들의

그룹이외에 코라스미아인, 소그드인, 스쿠드라인 등도 나타나고 있다. 복식의 유형에서 관찰되듯이 이들도 큰 범주에서는 스키타이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족이지만(Calmeyer, 1988) 흔히 스키타이인이라고 부르는 좁은 범위의 스키타이계 종족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종족에 대한 서술은 제외한다.

다리우스 무덤 부조의 스키타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형태는 〈표 4〉에서 관찰되듯이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와 메디아 식의 통이 좁은 ‘아낙시리데스’로 스키타이식과 메디아식의 혼합형이다. 이 복식유형에 따른 학자들의 스키타이인의 분류는 거의 동일하여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유형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있다. 단지 앞에서 메디아 식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메디아 식의 ‘아낙시리데스’ 바지 형태를 착용했던 Saka-tigraxauda

〈표 4〉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 묘사된 ‘Cut-away’를 착용한 스키타이인 분류

| 스키타이인  | 착용한 복식 유형                | 도식화 | 발저의 분류             | 슈미트의 분류            | 칼마이어의 분류        |
|--------|--------------------------|-----|--------------------|--------------------|-----------------|
| 7번 종족  | B1 + A2 + 3b             |     | 소그드인 (Sogdian)     | 소그드인 (Sogdian)     |                 |
| 8번 종족  | B1 + A2 + 3b             |     | 코라스미아인 (Chrasmian) | 코라스미아인 (Chrasmian) | 소그드인 (Sogdian)  |
| 14번 종족 | B1 + A2 + 3b             |     | Saka-haumavarga    | Saka-haumavarga    |                 |
| 15번 종족 | B1 + A2 + 3a-2           |     | Saka-tigraxauda    | Saka-tigraxauda    | Saka-tigraxauda |
| 24번 종족 | B1 + A2 + 3a-1           |     | Saka-paradraya     | Saka-paradraya     |                 |
| 25번 종족 | B1 + A2 + 페타소스 (Petasos) |     | 스쿠드라 (Skudra)      | 스쿠드라 (Skudra)      |                 |

인들이 <표 4>에서는 스키타이의 전개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의복의 형태가 아닌 조공물로 스키타이 종족을 구별한 견해를 살펴보고 위 내용을 보충하려 한다. 페르시아인과 메디아인들은 목걸이(Torque)를 권위의 상징으로 취급하며 중요한 물건으로 다루었다(Schmidt, 1970). 그래서 페르시아 부조에서는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조공물로 받치는 종족들이 관찰되는데, 페르시아 인들은 동맹을 맺고 있는 종족들에게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Schmidt 1970; Shahbazi, 1982; Truempelmann, 1988).

앞에서 설명한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의 14번 종족(Saka-haumavarga)(그림 10)과 24번 종족





(Saka-paradraya)(그림 12)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나 15번 종족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의미는 15번 종족은 페르시아인들에게 14번 종족이나 24번 종족처럼 가깝게 인식되었던 종족이 아니라는 것이다(Shahbazi, 1982). 이런 사실은 다리우스 대왕이 그 당시 왕권에 도전하려 했던 스키타이인들을 무찔렀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즉,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왕권에 도전했던 종족으로 정벌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다리우스 대왕이 정벌했던 아랄해 북쪽 지역의 Saka-tigraxauda 인이라는 것이다(Schmidt 1970; Shahbazi, 1982). 그러므로 목걸이의 착용 여부로 스키타이 종족을 구분하면 Saka-tigraxauda 인들은 아랄해 북쪽 지역에 살았던 종족이 되며, 이들이 착용했던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는

<표 5>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서 목걸이(Torque)를 착용한 스키타이 종족














| 스키타이 종족  | 다리우스 무덤 부조 14번 종족<br>Saka-haumavarga, 소그드인 | 다리우스 무덤 부조 15번 종족<br>Saka-tigraxauda | 다리우스 무덤 부조 24번 종족<br>Saka-paradraya |
|----------|--|--------------------------------------|-------------------------------------|
| 목걸이 착용여부 | ○  | X                                    | ○                                   |

<표 6> 100개의 기둥이 있는 문설주에 묘사된 'Cut-away'를 착용한 스키타이인 분류 - 발저에 의한 분류

(출처: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6-67, Walser, 1966, Berlin: Gebr. Mann Verlag GmbH)

| 스키타이인             | 착용한 복식<br>유형        | 도식화   | Walser 의 의복<br>유형 분류 | Herzfeld의<br>스키타이인 분류  | Schmidt의<br>스키타이인<br>분류 |
|-------------------|---------------------|---|----------------------|------------------------|-------------------------|
| 서쪽 문설주의<br>17번 종족 | B1 + B2 + 3b        |  | 스키타이식                | 소그드인<br>(Sogdian)      | 스키타이인                   |
| 동쪽 문설주의<br>18번 종족 | B1 + B2 + 3b        |  | 스키타이식                | 코라스미아인<br>(Chorasmian) | 스키타이인                   |
| 동쪽 문설주의<br>20번 종족 | A1+A2+ B1 +<br>3a-2 |  | 스키타이식 +<br>메디아 식     | 스쿠드라<br>(Skudra) 인     | 스키타이인                   |
| 동쪽 문설주의<br>22번 종족 | B1 + B2 + 3b        |  | 스키타이식                | Saka-tigraxauda        | 소그드인                    |
| 동쪽 문설주의<br>28번 종족 | B1 + B2 + 3b        |  | 스키타이식                | Saka-haumavarda        | 스키타이인                   |

〈표 7〉 뾰족한 모자의 형태에 따른 스키타이인의 분류

| 끝이 뾰족한 모자 모양의 형태                   | 목 덮개                   |                                   |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 모자 모양 도식화   | 스키타이인 분류        |
|------------------------------------|------------------------|-----------------------------------|---|---|-----------------|
| 끝이 아주 뾰족하고 끝이 위로 높게 올라간 모양 (3a)    | 있다                     | 툽니모양 (3a-1)                       | 비수툽 부조 Skunka   |  | Saka-tigraxauda |
|                                    |                        |                                   | 아파다 조공도의 11번째 종족 스키타이인  |  | Saka-tigraxauda |
|                                    |                        |                                   | 다리우스 무덤 부조 24번째 종족  |  | Saka-paradraya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서쪽 문설주 11번째 종족  |  | Saka-tigraxauda |
|                                    | 평평한 모양 (툽니모양 X) (3a-2) | 다리우스 무덤부조 15번째 종족                 |    | Saka - tigraxauda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 동쪽 부조 20번째 종족 |    | Saka  |                 |
| 끝이 뾰족하기는 하나 모자의 전체 형태가 삼각형 모양 (3b) | 없다                     | 다리우스 무덤 부조 7번째 종족                 |  |   |                 |
|                                    |                        | 다리우스 무덤 부조 8번째 종족                 |  |   |                 |
|                                    |                        | 다리우스 무덤부조 14번째 종족                 |  | Saka-haumavarga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 서쪽 부조 17번째 종족 |  |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 동쪽 부조 18번째 종족 |  | Saka-haumavarga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 동쪽 부조 22번째 종족 |  | Saka  |                 |
|                                    |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 동쪽 부조 28번째 종족 |  | Saka  |                 |
|                                    |                        | 아파다 조공도의 17번째 종족 소그드인             |  | 소그드인  |                 |

아랄해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복식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식 유형 1)의 미디어식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미디어식의 바지 '아낙시리데스'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을 카프카서스 남서쪽에 살았던 Saka-tigraxauda 인들이라고 보았던 슈미트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이다.

〈표 4〉에서 보면,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의 15번 종족을 학자들은 모두 Saka-tigraxauda 인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지역을 두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에 살았던 종족의 복식 형태 분류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직 확고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다.

〈표 6〉에서 관찰되듯이,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문설주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은 모두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에 통이 약간 넓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앞의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서 스키타이 종족들이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에 미디어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 스키타이인들의 의복의 형태가 부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리우스 무덤은 다리우스가 서거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Xerxes, B.C. 486-465)가 조성한 것으로 크세르크세스 집권 초기인 기원전 486에서 몇 년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세(B.C. 465-424)가 조성한 것이므로 다리우스 무덤 부조보다 약 30년 정도 늦게 조성된 것이다. 앞에서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보다 늦은 시기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세(B.C. 358-338) 때 조성된 다리우스 궁계단의 조공도 부조에서 스키타이인들의 바지 형태(그림 20-1)는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문설주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바지 형태보다 훨씬 넓은 형태이다. 통이 좁은 미디어식의 바지 형태는 통이 점점 넓은 바지로 바뀌어갔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의복의 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디어식의 유형에서 스키타이식의 유형으로 변화되었다고 추측된다.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서 관찰되는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에 미디어식의 통이 좁은 바지의 유형은 전체

적으로 스키타이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의 의복의 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뾰족한 모자의 형태 분석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모자의 구체적인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 이 뾰족한 모자의 형태는 스키타이인들의 지역적 분류에 구체적인 증거물로 사용되고 있다.

뾰족한 모자의 형태는 앞의 복식 유형의 분류 〈표 2〉에서 크게 두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표 7〉에서는 모자의 형태에 따라 스키타이인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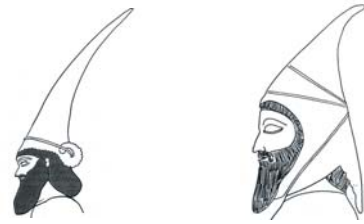
앞의 그림에서 끝이 아주 뾰족하고 위로 높게 올라간 모양의 모자가 다리우스 무덤 부조와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그림에서는 끝이 모두 뒤로 젖혀진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모자를 부조에 묘사할 때 끝을 위로 표현할 공간이 없어 뒤로 젖혀진 형태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어(Schmidt, 1970) 〈표 7〉에서는 끝이 뒤로 젖혀진 모양의 모자는 위에서 서술한 3a의 형태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였다.

〈표 7〉에서 관찰되듯이 끝이 뾰족한 모자의 형태(3a, 3b)는 목 뒷개의 유, 무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목 뒷개가 있는 모자를 착용한 종족들은 Saka-tigraxauda, Saka-paradraya 인들이고 목 뒷개가 없는 모자는 Saka-haumavarga와 소그드인 그리고 이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사카(Saka)인들이 착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자의 형태에 따라 스키타이 종족을 구분하면 Saka-tigraxauda, Saka-paradraya 인들의 그룹과 Saka-haumavarga와 소그드인들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 뒷개의 모양이 톱니 모양인 모자는 Saka-tigraxauda, Saka-paradraya 인들이 착용하고 있는데 이 형태는 Saka-tigraxauda인인 비수톤 부조의 스킴카와(그림 20)와 아파다나 11번째 종족(그림 21), 그리고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서쪽 문설주 11번 종족에서 확실하게 관찰된다. 또 Saka-paradraya인인 다리우스 무덤 부조 24번 종족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Saka-tigraxauda인이라고 설명되는 다리우스 무덤 부조 15번째 종족의 모

자에서는 목 뒷개의 모양이 톱니 모양이 아닌 평평한 모양이다(Shahbazi, 1982).

모자의 형태에서 Saka-tigraxauda 인과 Saka-paradraya 인들은 같은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이 두 종족들 간에는 일련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Saka-paradraya 인들은 흑해 북쪽 지역에 살았던 종족이다. 그리고 Saka-tigraxauda 인들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견해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흑해 남서쪽 지역이라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랄해 북쪽이라는 견해이다. 모자의 형태대로 분류하면 이 두 종족들은 근접한 지역에 살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종족으로 추측되어 Saka-tigraxauda 인들이 흑해 남서쪽 지역에 살았던 종족으로 이라고 주장한 슈미트의 견해에 근접한다.

이렇게 스키타이 종족의 그룹은 모자의 형태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있어 모자의 형태는 의복의 유형보다 스키타이 그룹을 세분하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그림 20〉 비수툰 부조 스키타이의 모자 상세도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Fig. 1)

〈그림 21〉 아파다나 조공도 11번째 종족의 모자 상세도

(출처: “Darius in Scythia and Scythians in Persepolis”, Shahbazi, A., 1982,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Fig. 7)

(4) 페르시아 부조의 조성 시기에 따른 스키타이인들의 시기별 복식 유형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스키타이인의 복식 유형을 부조의 조성 시기에 따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스키타이인들의 복식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8〉에서는 스키타이인들의 복식 유형을 시대

〈표 8〉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의 분류와 부조의 조성 시기에 따른 스키타이인들의 시기별 복식 유형

| 지역에 따른 스키타이인의 분류                             | 페르시아 부조 조성 연대에 따른 의복 유형 |              |                            |                            |
|--|-------------------------|--------------|----------------------------|----------------------------|
|  | 기원전 6세기 말               | 기원전 5세기 말-중  | 기원전 5세기 중-초                | 기원전 5세기 중-초                |
|  | 비수툰, 아파다나 조공도           | 다리우스 무덤 부조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 |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동쪽 문설주 부조 |
| 흑해지역 스키타이인 (Saka-paradraya)                  |                         | B1+A2 + 3a-1 | B1+A2+3a-1<br>B1+B2+3b     |                            |
| 카스피해 북동쪽, 아랄해 북서쪽 지역 스키타이인 (Saka-tigraxauda) | A1+A2 + 3a-1            | B1+A2 + 3a-2 | A1+A2+3a-1<br>B1+B2+3b     | B1+B2+3b                   |
| 아랄해 동쪽 지역 스키타이인 (Saka-haumavarga)            |                         | B1+A2+3b     | B1+B2+3b                   | B1+B2+3b                   |

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시대적으로 복식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설립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기원전 6세기 초에는 미디어식의 복식 유형인 미디어식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와 미디어식 바지인 '아낙시리데스'의 유형이 주로 나타났다. 다리우스 왕이 서거 한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B.C. 486-465)가 기원전 5세기 말에서 중엽까지 조성한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서는 스키타이식과 미디어 식의 혼합형 복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미디어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자주적인 스키타이 식으로 전개되는 중간과정의 복식 유형으로 스키타이식 전개형 저고리에 통이 좁은 미디어 식 바지 '아낙시리데스'가 콤비 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중엽에서 초까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B.C. 465-424) 때 조성된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문설주 부조에서는 복식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스키타이 식인 스키타이의 전개식 저고리와 미디어의 바지 보다 통이 약간 넓은 바지인 스키타이 식 바지로 변화되어 갔음을 관찰할 수 있다.

## 2.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과 주변 지역 스키타이인 복식과의 관계

### 1) 이식쿨(Issyk-kul) 스키타이인 복식과의 관계

지금의 카작스탄의 도시 알마티(Almaty)에서 약 50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식쿨 호수 근처에서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되는 사카족의 쿠르간이 발견되어(Parzinger, 2004)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쿠르간에서 온통 금으로 장식된 저고리와 뽀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의 귀족으로 추측되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저고리는 엉덩이 까지 오고 소매는 좁은 형이다. 또한 저고리는 앞에서 여머지는 전개형이고 허리에서 허리띠로 묶여진 형태이다. 저고리의 끝단은 일자형이며 저고리의 끝단과 소매 끝단은 장식선으로 장식되어있다(Parzinger, 2004)(그림 22, 23). 이 저고리의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미디어의 튜닉

형 저고리와 스키타이인의 전개형 'Cut-away' 저고리의 요소가 섞여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미디어 식의 튜닉형 저고리이나 전개형인 것과 저고리 끝단에 장식선이 붙어 있는 것은 스키타이식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고리 윗 팔의 장식선이다.

스키타이 저고리에서 윗 팔의 장식선은 흑해 지역의 스키타이인 의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그림 24)(장영수, 2015). 장영수는 흑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의복에 나타나는 장식선은 의복을 재단한 솔기를 이은 후 그 위에 장식선으로 붙였던 장식선이라고 설명한 클로코(Klocko, 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흑해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의복에 나타나는 장식선을 지역별, 신분별로 분류하여 저고리 윗 팔에 나타나는 장식선을 흑해 북쪽지역 스키타이 의복에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로 설명하였다(장영수, 2015). 여기 이식쿨 스키타이인의 저고리 윗 팔에도 장식선이 관찰되고 있어 윗 팔의 장식선은 장소에 무관하게 나타나는 스키타이인 의복의 공통된 복식요소라고 유추된다.

바지는 통이 좁은 형태로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 속으로 착용되어져 있다. 통이 좁은 바지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바지와 비슷하나 끝에 신발이 붙어있는 '아낙시리데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뽀족한 모자의 형태(그림 25)는 앞에서 살펴본 비수톤 부조의 스키타이인 모자 형태와 비슷하나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스키타이인의 목 덮개가 톱니모양인 반면 이식쿨 귀족의 모자의 목 덮개는 톱니 모양이 아니다. 목 덮개가 톱니 모양이 아닌 스타일은 앞의 다리우스 무덤 부조에서 Saka-tigraxauda인 이라고 설명되는 15번 종족의 모자형태(그림 11)와 같은 형태이다. 목 덮개의 형태로 종족을 구분하면 Saka-tigraxauda인과 이식 쿨의 스키타이인은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어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페르시아 비문에 다리우스 대왕이 무찔렀던 아랄해 근처의 스키타이인을 뽀족한 모자를 착용한 Saka-tigraxauda인으로 본다면 이식쿨 지역은 이 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역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식의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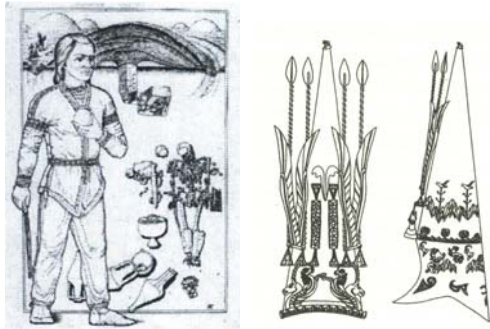


〈그림 22〉 이식쿨의 황금 인간

(출처: Die Fuerstengraeber des Siebenstromlandes, Samasev Zajnolla, 2008, Im Zeichen des goldenen Greifen, Koenigsgraeber der Skythen, p. 166.)

〈그림 23〉 저고리 상세도

(출처: Die Skythen, (p. 58, Abb. 7-3), Parzinger, Herman, 2004, Muenchen: Verlag C. H. Beck)



〈그림 24〉 흑해 지역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의 기본 복식 유형 복원도

(출처: Skythische Tracht, Klocko, 1991, Gold der Steppe, Archaeologie der Ukraine, p. 107.)

〈그림 25〉 이식쿨 스키타이인 모자 상세도

(출처: Die Skythen, (p. 58, Abb. 7-2), Parzinger, Herman, 2004, Muenchen: Verlag C. H. Beck)

이식쿨 쿠르간이 발굴된 이식쿨 지역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동안 이란계 유목 민족인 사카족이 거주했던 중심 지역으로 이 지역의 문화

는 사카문화 중에서 아랄해의 사카족과 파지리크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을 연결시켰던 문화(Jessik-Beschsatyr-Kultur)로 알려져 있어(Parzinger, 2006; Saka-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Jessik-Beschsatyr-Kultur>) 여기에서 살펴본 복식의 유사한 형태는 아랄해의 스키타이인과 이식쿨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의 문화적 교류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결론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키타이 복식 연구에서 유일하게 실증적 자료로 인정받는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은 두 가지로, 1) 메디아 식의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Sarapis)'와 메디아 식의 바지 '아낙시리데스'의 유형과 2)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전개형 저고리인 'Cut-away' 저고리와 바지의 유형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3)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복식의 유형은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다르게 관찰되어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의 유형을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1) 메디아의 튜닉형 저고리인 '사파리스'와 바지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조성된 비수톤 부조와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궁 조공도 부조 또 이들 부조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Artaxerxes I, B.C. 465-424)때 지어진 페르세폴리스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의 서쪽 문설주 부조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통이 좁은 바지에 신발이 달려있는 '아낙시리데스' 형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비수톤 부조에 묘사된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 왕 스쿰카의 모습은 다리우스 왕이 519년 아랄해 지역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Saka-tigraxauda)을 무찌르고 스키타이인 왕을 포로로 잡아 비수톤 부조에 새겨 넣었다는 역사의 기록으로 인해 스쿰카의 복장이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복장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스키타이인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전개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왜 이 스키타이인들은 미디어의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기에 여기에 대해 미디어 국과 인접한 지역인 카프카스 산맥 남서쪽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인들이 미디어의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했다고 설명한 슈미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슈미트는 이 견해로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Saka-tigraxauda)을 카프카스 산맥 남서쪽 지역에 살았던 종족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는 페르시아 비문에 새겨진 다리우스 대왕이 아랄해 지역에 살았던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을 무찔렀다는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전개형 저고리인 'Cut-away' 저고리와 바지 유형은 기원전 5세기 중엽 크세르크세스가 조성한 다리우스 무덤 부조와 기원전 5세기 중엽과 5세기 초에 조성된 페르세폴리스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과 이보다 후인 기원전 4세기 중엽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B.C. 358-338)가 조성한 다리우스 궁 조공도 부조의 스키타이인들에서 관찰되어 1)의 미디어식의 복식 유형보다는 후기의 복식유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원전 5세기 중엽 'Cut-away' 저고리와 바지 유형은 초기에는 스키타이식과 미디어식의 혼합형인 스키타이의 전개식 저고리와 미디어 식 바지 '아낙시리데스'의 유형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는 순전한 스키타이식 유형인 스키타이의 전개식 저고리와 스키타이 식 바지인 통이 약간 넓은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어서 스키타이 복식 유형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3) 모자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였는데 이 모자는 끝이 뾰족하여 위로 올라간 형태와 끝이 약간 뾰족하고 모자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형태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Saka-tigraxauda인과 Saka-paradraya인들이 착용하고 있었고 후자는 Saka-haumavarga인들에게서 관찰되었다. 모자의 형태가 스키타이 그룹들을 세분화하고 지역에 따라 모자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 모자의 분석은 스키타이 종족의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었다.

4) 이식쿨 쿠르간의 스키타이인 복식과의 비교에서는 전개형 저고리와 모자의 형태 등 복식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Saka-tigraxauda 인과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이는 지역적 근접성이 복식에 미친 영향으로 유추되었다. 또 이식쿨 쿠르간의 스키타이인 복식에서 관찰되는 윗 팔 장식선은 흑해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같은 것으로 이는 지역에 관계없이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추측되었다.

## 참고문헌

- 김동욱. (197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 문화사.
- 김문자. (1992). 스키타이 복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10, 199-212.
- 김문자. (1994).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서울: 민족문화사.
- 김문자. (1999). 스키타이 복식과 고대한국복식과의 관계연구. *중앙아시아 연구*, 4, 95-111.
- 김문자. (2000a). 스키타이계 장식품에 나타난 동물문에 대한 연구 - 단독 동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8(8), 13-27.
- 김문자. (2000b). 스키타이계 장식품에 나타난 동물투쟁문에 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4(3), 67-78.
- 김문자. (2007). 스키타이계 복식에 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1(4), 204-220.
- 김문자. (2008). 스키타이계 관모. *중앙아시아 연구* 13, 55-76.
- 박순희. (1998). Eurasia 기마민족 중 Scythia 복식의 선 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13, 439-460.
- 이여성. (1947).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 장영수. (2008).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비수튼 부조에 묘사된 복식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1), 79-97.
- 장영수. (2012). 고대 종족들의 바지 유형에 대한 연구 -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를 중심으로 -. *복식*, 62(8), 81-99.
- 장영수. (2015). 스키타이 의복에 대한 연구 I - 흑해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7(2), 191-202.

- Barnett, R. D. (1957). *Persepolis, Iraq, Vol. XIX, part/2, Autum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65.
- Kim, M. J. (2002). A study on the Scythian Gold Plaqu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6(3), 1-14.
- Kim, M. J. (2003). A study on the Scythian Torqu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6(2), 69-82.
- Kim, M. J. (2004). A study on the Scythian Bracelet. *Journal of Fashion Business*, 8(4), 1-9.
- Kim, M. J. (2006). A study on the Scythian Buckl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0(6), 38-51.
- Schmidt, Erich(1970). *Persepolis III (The royal Tombs and other Monuments)*, Illinois: Chicago University Press.
- Schmitt, Ruediger. (2003). Haumavarga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haumavarga>). 검색일 2016.01.10, 자료출처 Ehsan Yarshater(Hrsg.): *Encyclopaedia Iranica*, Stand: 15. Dezember 2003.
- Widengren, G. (1956). Some remarks on riding costumes and articles of dress among Iranian peoples in antiquity, in *Studica Ethnographica Upsaliensia XI, Arctica* 238.
- Bittner S. (1985). *Tracht und Bewaffnung des persischen Heeres zur Zeit der Achaemeniden*. Muenchen: Verlag, Klaus Friedrich.
- Calmeyer, Peter. (1972-1975). *Hose.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ederasiatischen Archaeologie*, 4, 472.
- Calmeyer, Peter. (1982).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Die statische Landkarte des Perserreiches-I. *AMI(Ar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15, 106-198
- Exhibition Catalog (1984). *Gold der Skythen aus der Leningrader Eremitage [Gold of the Scythians from the Leningrad Hermitage]*. Muenchen: Staatlichen Antikensammlungen und Glyptothek.
- Feld, S. (1999). *Bestattungen mit Pferdegeschirr- und Waffenbeigabe des 8-6. Jh. v. Chr. zwischen Dnester und Dnepr*. Norderstedt, zug. Diss. Saarbruecken 1997.
- Jettmar, Karl (1972). Die Steppenkulturen und die Indoiranier des Plateaus, *Iranica Antiqua* 9. Leiden: E. J. Brill.
- Hinz, Walter. (1969). *Alt 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Berlin: Walterde Gruyter &Co.
- Junge, Julius. (1971). *Saka-Studien: Der ferne Nordosten im Weltbild der Antike*. Klio, Beiheft 41: Aalen.
- Klocko L. S. (1991). Skythische Tracht [Scythian costume]. *Gold der Steppe, Archaeologie der Ukraine*, 105-113, Neumuenster: Karl Wachholtz Verlag.
- Koch, H. (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Mainz/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 Litvinskil, b. A. (1969). *Beitraege zur Alten Geschichte und deren Nachleben: Festschrift fuer Franz Altheim*, Berlin.
- Murzin Vjaceslav, Ju. (1991). Kimmerier und Skythen[Cimmerian and Scythian], *Gold der Steppe Archaeologie der Ukraine*. Neumuenster: Wachholtz Verlag.
- Nagel, W. (1982). *Ninus und Semiramis in Sage und Geschichte, Iranische Staaten und Reiternomaden vor Darius [Ninus and Semiramis, in question and history iranian States and nomadic horsemen before Darius]*. Berlin: Verlag Volker Spiess.
- Parzinger, Herman. (2004). *Die Skythen[The Scythian]*. Muenchen: Verlag C. H. Beck.
- Parzinger, Herman. (2006). *Die frühen Völker Eurasiens, Vom Neolithikum bis zum Mittelalter. Historische Bibliothek der Gerda-Henkel-Stiftung. Band 1*. München: Verlag C. H. Beck.
- Samasev, Zajnolla. (2008). Die Fuerstengraeber des Siebenstromlandes [The royal tombs of the Sevenrivers States], *Im Zeichen des goldenen Greifen, Koenigsgraeber der Skythen*. Muenchen: Prestel Verlag.
- Sauter, Hermann. (2000). *Studien zum Kimmerier Problem[Studies on Cimmerian problem]*. Bonn.
- Schmoeckel, Reinhard. (1982). *Die Hirten[The Shepherd], die die Welt veraenderten*, Hamburg: Verlag Rowohlt.
- Sigrismund, Marcus. (2005). Skythen. *Lexion*, <http://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11821>, 검색일 2016.1.16.
- Truempelmann, Leo. (1988). Zur Herkunft von Merdern und Persern.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21, 79-90.

Walser, Gerold. (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he tribes on the reliefs of Persepolis]*. Berlin: Verlag Mann.

Saka.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5.11.10., 자료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Jessik-Beschsatyr-Kultur>)